

교육공무직원 고충상담 창구 마련

전북교육청, 인사상담책임관·사전예약제 신설... 인사·직무 스트레스 등 상담 지원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교육공무직원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지난 2월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사상 어려움이나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등으로 정신적 고충을 호소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공식적인 상담 창구를 마련·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부적응이나 조직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한 중도퇴직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직무 안정성을 돕기 위함이다.

특히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6,300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고충 상담이나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이 없어 맞춤형 상담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시·군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인사상담책임관을 지정하고, 사안의 내용에 따라 상담에 응하는 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고충처리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교육공무직원

은 전화 또는 방문, JB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예약 후 예약된 시간과 장소에서 실무자와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거나 전화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상담자가 여러 부서에 반복적인 민원·고충 제기를 방지하고,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1회 접수만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서 공동대응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상담 결과 회신은 즉답할 수도 있으며, 즉답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 후

7일 이내에 회신하거나 1회 연장해 총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담결과 치유가 필요한 노동자에게는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상담과 치료지원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이 인사나 근무 여건, 신상 문제 등의 고충을 거리낌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공식 상담창구를 제도화했다”면서 “조직 내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가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사기진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는 연구생에 전주기 우수 연구자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우수 연구 교수인 '펠로우'를 매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스타교수 육성 '이목 집중'

전북대, 올해부터 우수 연구 교수인 '펠로우' 지정·운영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교수들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애 전주기에 걸친 우수 연구자 지원 체계를 마련, '스타교수' 육성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월25일 전북대에 따르면 연구생에 전주기 우수 연구자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우수 연구 교수인 '펠로우'를 매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임용 5년 이내 젊은 연구자를 선발하는 'JBNU Young Fellow'와 부교수 및 승진 5년 이내의 교수를 선발하는 'JBNU Fellow', 교수 승진 5년 이후부터 만 60세까지의 교수를 선발하는 'JBNU Star Fellow', 그리고 만 61세 이상과 정년 이후까지 지원하는 'JBNU Regents Professor' 등을 지정해 연구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대는 JBNU Star Fellow와 BNU Fellow의 경우 최근 5년 간 연구실적을 정량 평가하고, JBNU Young Fellow는 임용이전 연구실적(40), 이후 연구실적(50), 발전가능성(10) 등을 합산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JBNU Star Fellow에는 김민호(무역학과) 교수를 비롯해 박상준(경영학과) 교수, 윤영상(화학공학과) 교수, 이종희 교수(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 정길도 교수(전자공학과) 등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JBNU Fellow에는 김석원 교수(체육교육과), 김종훈 교수(수의학과), 나석인 교수(유연소재전자전소재학과), 박찬희 교수(기계설계공학과), 양은석 교수(철학과),

오효정 교수(문헌정보학과), 유동진 교수(생명과학부), 장점석 교수(생명공학부), 정광운(고분자섬유나노공학과), 정현아(식품영양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JBNU Young Fellow에는 김종웅 교수(신소재공학과), 박삼훈 교수(회계학과), 박지연 교수(국제인문사회학부), 서동호 교수(식품공학과), 선중학(경영학과), 이태희 교수(전자공학과), 최경숙 교수(무역학과)가 선정됐다.

또한 JBNU Regents Professor에는 김철생 교수(기계설계공학과)와 김형석 교수(전자정보공학과), 왕은철 교수(영어영문학과)를 임명해 정년 후에도 전주기에 걸쳐 연구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대는 이날 26명의 선정 교수에 대한 시상 및 임명식을 갖고, 포상금과 해당 분야의 대학 대표 석학임을 상징하는 명패와 현관, 명함 등이 담긴 'JBNU Fellow Box' 등을 수여했다.

특히 JBNU Young Fellow에 선정된 교수들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연구기저 지원금을 제공해 초반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연구중심대학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도전적 연구 강화와 미래 신기술 개발, 융·복합 연구 육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연구생에 전주기별로 교수님들이 연구에 더 집중해 우리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큰 결실을 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중도입국 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 강화

전북교육청이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자녀의 공교육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을 운영,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도 중도입국학생 위탁교육기관은 군산다음세대학교,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인재교육원,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수리늘배움협회 등 모두 5곳이다.

위탁 대상은 공교육에 진입한 중도입국학생 및 외국인가정 자녀 초·중·고등학생으로 위탁을 희망하는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장 상담을 통해 위탁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탁기간은 종일 위탁형 3개월, 오후 위탁형 4개월이며 학생의 원적고 시간에 맞춰 1교시당 초등학생 40분, 중학생 45분, 고등학생 50분으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는 소속학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기간은 2021년 2월부터 12월 까지 11개월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학습 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원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아시아 대학생들, '머리 맞대고' 창의적 공학 설계·제작

전북대 글로벌 프로그램

'i-CAPS' 7개월 대장정 시작

군산대 등과 17개 연합팀 구성

8월 프로젝트 최종발표 진행

우수 4개팀 선발 경진대회 지원



글로벌 융복합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화상회의 캡처.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글로벌 융복합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i-CAPS)'가 최근 9기 연합팀을 구성, 7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전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NTU),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ITB), 말레이시아 국립대학(UKM), 대만 청중국립대학(NCKU) 등 아시아 주요 대학의 학생들과 국내 대학 학생들이 연합팀을 구성해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전북대만의 선도적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8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북대를 비롯한 8개 대학(공주대, 광운대, 광주대, 군산대, 동신대, 순천향대, 전남대, 제주대)과 해외 4개 대학(NTU, ITB, UKM, NCKU) 학생 80여명이 참여해

총 17개의 연합팀을 구성해 'Life in New Normal'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된 1차 디자인캠프에서 학생들은 팀 활동을 통해 프로젝트 제안을 완성하고, 앞으로 수시 회의 등을 통해 공학설계 작품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8월 예정된 2차 디자인캠프에서는 프로젝트 최종발표 및 평가가 진행되며, 우수 4개 팀을 선발해 11월에 개최되는 전국 단위 공학페스티벌-국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참가도 지원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실시간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 실시

수업환경 확대 통한 상황별 맞춤형 교육 운영 가능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021학년도 수업을 실시간 대면·비대면으로 병행한다고 밝혔다.

대면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강의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원격수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원격수업은 미래의 교육환경 확대를 통한 상황별 맞춤형으로 수업환경 선택의 확대에 역할을 두고 있는

것으로 대면·비대면 강의 실시간 동시 운영은 수업환경의 확대를 의미한다.

실시간 원격수업은 대면수업에 동시 참여 가능하고 수업전에 사전 강의자료를 탑재하기 때문에 학습효과도 얻는 장점이 있다.

교수자는 기존 대면강의처럼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면 수업 참여 학생들은 방역지침에 따라 준비된 강의실 수업에 참여해 이론 및 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안전한 대면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강의동에 열화상카메라와 손소독제를 설치, 발열체크와 QR코드 확인 후 입장 가능하며 강의실 내에서는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 미 착용시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대면수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방역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원격수업지원센터에서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원격수업점검 운영을 통해 수업시간 준수 및 휴·보강 등의 주요사항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